

루소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공공교육론

김영호(성공회대학교/연구교수)

youngrevk@hanmail.net

한글 초록

오늘의 한국교회와 신학은 제대로 된 성찰의 부재로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성 하락과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교회와 신학은 시민사회로부터 믿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과제가 어떻게 기독교교육에서 전개될 수 있는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공공신학에 관심하게 하며, 교육이 공론장의 중요한 영역이라면 이제 기독교교육은 공공성과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교육철학자들에게 관심하게 된다. 루소는 근대 교육철학을 연 교육학자로서 18세기에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명제를 통해 어린이의 존재에 대해 발견하고 시민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루소의 저서 『에밀』, 『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 등에 나타난 그의 교육 철학적 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공영역과 시민사회를 위해 기독교 공공교육론을 위한 교육철학적 단초로 전개할 수 있다.

《 주제어 》

기독교 공공교육론, 공공신학, 루소, 에밀, 사회계약론, 교육철학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루소 교육론의 사상적 접근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 공공교육론을 위한 교육철학적 단초를 밝히는 데 있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제를 통해서 18세기 근대화의 모순을 직시한다. 시민사회에서 루소의 입장은 그의 저서 『에밀』, 『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 등의 저서들을 통해서 발전된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명제는 불공정한 근대성을 극복하고 시민사회를 열어가는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한다. 적어도 루소에게서 시민사회는 국민 주권을 기초로 세워지고 참여 민주주의가 중요하게 작동되는 사회이다. 여기서 개인의 문제와 인권은 공공선과 도덕성 안에 기초하며,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테제는 본래적 위치에 존재한 동등함과 도덕적인 관계를 시민사회 안에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일반의지를 기초로 한 시민국가에서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이런 점에서 루소는 공공신학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독교교육론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통찰과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미의 학계에서 활동하는 정승훈 교수는 루소의 시민 국가론과 공공선에 지대한 관심을 둔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은 사회 제도적인 조직이나 공공영역과 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된다(정승훈, 2021, 3). 다시 말하면 공론장의 일들(res publica)에 관련되고 여기서 민주주의와 공공선 그리고 도덕 사회를 어떻게 증대하는가가 초점이 된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시민사회 안에서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일차적인 과제를 가진다. 공공선과 정의 그리고 연대를 증진 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문제를 다룰 때이다. 이런 점에서 루소와 칸트의 철학적 전통은 공공신학 안에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장신근은 공공신학을 인간의 공적인 삶에 대한 공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제시하는 공적인 신학의 한 형태이며, 인간의 공적인 삶에 대한 '기독교교

육의 관점'에서 개발하여 공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제시하는 실천신학의 한 분야를 “공적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이라(장신근, 2003, 453) 설명하면서 제자직과 시민직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의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장신근, 2009, 109-152). 또한 학제 간의 융합과 대화를 통하여 변증 할 수 있는 시민과 제자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이론과 철학적 전통이 일차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기독교 공공교육이라 부른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사회는 신자유주의와 포스트콜로니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구온난화의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인간소외 현실 앞에서 그 한계를 숨길 수 없다.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의 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가의 신체 정치학이 드러나기도 한다. 여기에는 백신의 도입과 사회분배에서도 공공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교육에는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로 무엇이 시민사회 안에서 이슈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공공신학과 기독교 공공교육론은 시민사회를 분석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루소 교육론의 성찰은 한국교회의 상황과 신학에 기독교 교육이 공공교육론으로서 다양한 교육적 목적과 철학적 의미 등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II. 루소와 계몽주의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활동하던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로 불린다. 정치적으로는 전제군주의 지배가 정당하게 보이는 절대 왕정의 시대였다. 또한 16~18세기는 과학혁명의 시대로 경제적으로는 산업 혁명 직전의 시대이고 식민지 수탈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시기이다. 계몽주의는 이성의 발견으로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합리주의로 이성이나 지성을 존중했으며, 실리주의와 현세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루소는 로크로부터 많은 교육적 영향을 받았다. 사람의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데 이것은 자연과 같은 상태이다. 여러 가지 경험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받아 그러한 경험이 쌓이는데 이것을 문화라고 한다. 복잡한 지식이 쌓여 이성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루소는 비본질의 상태로 파악한다. 그러나 로크와 갈라지는 점은 로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악하고 귀족주의나 군주제를 비판했다면, 루소는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이 부패하거나 야만적이지 않다고 본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적인 위치를 의미하며 서로가 동등하고 연민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론적 가설이다.

당대의 교육 상황에서 루소는 합리성과 산업주의와 발전에서 물질적인 탐욕과 도덕의 타락을 직시했다. 계몽교육을 통해 지식은 산출하지만 더 이상 사람을 도덕적으로 함양하지 못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유지하지도 못한다. 부에 대한 축적으로 인해 빈곤층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임을 루소는 본다. 이제 루소는 새롭고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교육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며 회복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이러한 이론적인 원리를 기초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개념화한다. 이런 점에서 루소는 자연 철학과 시민사회론으로 공공선과 시민도덕으로 엮어진다. 부의 축적과 경제 그리고 비도덕성으로 만연한 당대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특히 루소는 신자유주의 교육론으로 인간 형성의 과제를 등한시하는 오늘의 교육 현실에 적절한 해답을 주게 된다.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 바람직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자연성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18세기 교육 상황과 현재의 교육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모든 학교에서는 개인의 적성, 흥미, 관심,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대학이나 기술을 익혀 취업하게 하는 교육,

높은 진학률이나 취업률이 높으면 교육의 완성과 결과로 여긴다. 이러한 교육의 위기 속에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위기, 지구 기후 위기와 인간소외가 점점 교육의 내용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21세기에 루소의 교육철학과 교육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은 영국의 신교육운동과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가지게 된다. 모든 문제의 근원성이 '왜곡된 자연성'으로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본래적 자연 상태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그 본래적 자연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본래적 자연에 대한 인식은 가상적 추론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돌아간 원시적 자연성의 회복이 본래적 자연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루소는 이 원시적 생활 형태의 회복, 원시 상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여 도덕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론(김현우, 2021, 2)을 주장한다. 단순한 원시 자연으로의 회귀를 말하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 이성의 화해를 시민국가와 도덕사회 그리고 경제적 약자와 밀려 나간 자들과의 인정과 연대에서 추구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자연상태(현실)에서 사회상태(루소, 2020, 8)로의 진화 과정을 비판하다. 『에밀』을 통해서 왜곡된 인간의 자연성과 인간의 올바른 인식이 자연 교육론의 출발점이 되며,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사회, 정치 시스템 안에서 일반의지는 한 개인 의지의 이익을 넘어 타인, 공동의 이익, 정의와 평등을 확보한다. 이것은 동시에 시민의 교육과 덕의 함양을 포함하는 교육적 차원을 갖는다.

III. 루소 『에밀』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교육학

1. 루소의 자연에 따르는 교육

루소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이 아니고 핵심적인 주제는 인간과 사회이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찰이며, 『사회계약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정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접근이 된다. 루소는 신체 건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삶을 사는 『에밀』을 통해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 교육방법을 어떻게 성취하는 지를 그리며 추상적 가설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리고 있다. 루소는 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이 진보하는 왜곡된 사회의 상태를 분석한다.

요약해보면 자연의 본래적 상태를 기초로 평등과 연민 그리고 공공선을 불평등으로 넘쳐나는 사회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국가 안에서 일반의지와 국민 주권을 통해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본래적 자연 상태는 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의미를 갖는다.

루소에 의하면 인간의 본래적 본성, 자연 상태의 자연인은 좋은 상태이다. 그 본성과 자연성 안에는 자기보존의 마음인 자기애를 가지고 다른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적 혐오감과 동정심이 있다. 이것은 이성에 우선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특질이다. 자유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유함을 인식하는 자유에 대한 의식에서 그 존재가 주체적인 존재로서 서는 것이다(조금호·강정인, 2012, 272). 자율성은 자기 이외 무什么的 판단이나 복종함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자유로운 존재이다(안인회 외, 1992, 167).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장과 개량은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성은 완전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발달 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보존의 욕구, 다른 개체를 향한 연민, 자유의 주체로서 갖는 자유의지, 인간의 완성 가능성과 그 근거로서의 이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한다(김현우, 2021, 22). 인간의 본성이 자연적 상태로 그 현존감을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에 따라 행복하다. 자연인에게 행복은 타인의 판단 속에서 찾는 욕망이나 예측에서 벗어나 자연인은 불평등을 거의 느끼지 않고 그 자

신 안에서 산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자의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위적인 사회의 발전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선하지만, 사회 체계의 모든 대립과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인간은 악하게 되었다. 루소의 첫 번째 담론에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을 향한 과학과 예술의 발전에 상응하여 타락했다.” 계몽과 근대는 부와 사치를 생산했지만 건전한 도덕과 정치권력에 대해선 치명적이다(정승훈, 2021, 280).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루소의 요구는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와 동정심 그리고 평등함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역사의 발전에서 드러나는 불평등과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계약론』과 국민 주권에 기반을 제공한다(정승훈, 2021, 281). 이런 점에서 『사회계약론』 첫머리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와 제도 그리고 위계질서로 인해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외부적인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사회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인간의 자연적 종족성을 희생시킴으로 인간은 사회로 진입하고 이성을 완성한다. 그러나 사회로 나간 인간은 사교적이지만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사악하게 된다. 인간과 세계를 까마득한 출발점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점에 까지(루소, 2019, 37)오게 하는 많은 우연들이 존재한다. 유사 인간의 단계(자연과의 완전한 동화), 관계 개념의 확립단계(자연을 대상으로 파악), 추상적 개념의 형성 단계(집의 발명과 사랑의 감정), 기술의 발명단계(야금술과 농업), 계몽의 완성단계(인간성의 완성과 타락의 시작)로 자연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상태로 나아간다(김용민, 2004, 74-85). 사회상태는 국가 권력의 성립 이후의 단계를 인간의 자연성을 강탈하는 상태로 간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루소의 지배와 예속의 변증법을 불평등의 분석에서 만나게 된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법에 따라 인정되는가? (루소, 2020, 52). 루소의 입장은 자연의 본래 상태에서 드러나는 자유, 선택, 평등을 다루면서 전개된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성상 선하다고

본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자로 확인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 다른 짐승들과 구분 짓는 것이다(루소, 1964, 13). 자기 보전과 행복은 자연적 독립성의 원리를 강조하며, 이 두 가지 원리들은 이성에 앞서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다(루소, 1964, 14). 하지만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침해를 당하며, 소유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진화론적인 규모에서 물질적인 생존 수단을 위한 폭력적인 경쟁과 전쟁이 발생한다. 개인의 가치는 존재에서 소유로 바뀌게 된다. 생산수단의 독점은 끊임 없는 소유욕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은 전쟁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루소, 2020, 116). 거대한 행정 권력을 만들고 이것은 국가가 된다. 이렇게 행정 권력이 제도화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의 권리나 인민의 자유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약자들의 요구가 반란과 불평등으로 취급된다(루소, 2020, 134). 전제군주 이후 즉 혁명을 거쳐 인간은 다시 평등해진다. 여기에 루소의 교육 이론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물줄기가 드러난다. 혁명을 통한 새로운 시민사회는 왕권과 귀족제를 타파하고 공화 민주주의에 기초 되고 그동안 억압된 평민과 하위계급은 이제 시민으로서 법적 주체가 되면서 인권을 회복한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의미가 존재한다. 적어도 루소에게 인권은 오늘날 서구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존 사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지배를 타파하고 하위계급의 사람들을 개인과 정치적 주체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시 상태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교육은 자기애, 양심, 자유, 이성,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란 의식이 있는 인간이 바로 자연인이다. 이 자연인이 『에밀』의 목표이자 『사회계약론』의 시작이다.

2. 『에밀』에 나타난 자연교육

『에밀』에서 인간이자 시민을 위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계몽주의는 자연적 이성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는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서 완성에 가깝게 발전하며 학문과 예술의 진보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고 낙관주의적 확신에 기초한다. 루소의 계몽주의 비판은 인간성과 도덕의 함양이 문화와 문명을 통한 학문과 예술의 진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자연성을 퇴화시킨다고 한다. 문화와 문명의 오명에서 차단된 인간성을 새로운 방법과 인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인간 본래의 덕성을 함양시키려 한다(김시형, 2015, 183).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는 자연 상태의 인간 존재에 근거한다. 볼테르는 루소가 반-문명적이며 자연의 숲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이러한 표어가 루소 자신에게 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표어는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 낭만적인 의미에서 순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강자의 권리나 불평등은 자연 상태에도 존재한다. 오히려 그것은 시민사회를 적절하게 자연법에 근거 지우는 가정이다. 자연법은 자유로운 중재로서 인간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며, 모든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합시킨다. 자연적인 인간은 사회적 덕목이나 다른 능력들을 볼 때 잠재적으로 안전성을 가진다. 지배와 예속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루소, 1964, 169). 신학의 관점에서 루소의 정치이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은 칼 바르트이다.

루소의 관점은 야만인이 자연적으로 잔인하며, 잔인함을 극복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 문명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과는 다르다. 그 어떤 것도 자연의 본래 상태에 있는 인간만큼 유순한 것은 없다. 자연에서 인간은 잔인한 짐승들의 어리석음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문명인의 치명적인 계몽과도 다르다. 진보와 문명선교의 식민주의 개념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루소는 식민 지배에 가장 강력한 비판가였으며 계몽과 진보의 낙관적 견해에 작별을 고한다.

1) 인간 이해-아동의 존재 발견

『에밀』은 어린이의 발견서이다. 어린이의 발견은 어린이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어린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과정이다(안인희 외, 1992, 10). 『에밀』은 새로운 어린이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가설적이고 조건적 추리에서의 창조된 인간상이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필요한 인간, 그 근원을 찾아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찾는 존재로서(루소, 2008, 31), 부모의 신분엔 적합한 교육이나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으로써의 삶을 자연은 명령한다. 그것이 어린이에게 가르쳐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에서 경쟁과 부의 축적 그리고 특권을 기초로 한 진보의 인간상은 소외된 인간만을 길러내고 만다. 왜곡된 자연에서 인간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세대의 요구로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손길만 닿으면 타락하게 된다. 식물이나 동물은 물론 기후마저도 뒤흔들어놓아 모든 것이 변형되고 뒤죽박죽으로 바뀐다. 이러한 경향은 같은 인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같은 인간을, 마치 가축이나 정원의 나무처럼 왜곡하고 변형한다. 이에 따라 인간의 본성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루소, 2008, 12)

자연의 본성을 획득하는 교육은 자연인을 기르는 교육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에 대한 이해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 본능과 사랑스러운 감정(모든 동물체의 본능적 유사성)을 하나의 어린이를 어른의 생활 질서 안에 끌어들이는 적극적 태도이다(안인희 외, 1992, 12). 이것은 어린이를 집안일을 돕는 여분의 성숙하지 않은 노동력이었고, 치열한 삶과 생존의 자리에서는 미숙하기에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다. 이런 인식은 어린이에 대한 명령과 억압을 정당하게 여기게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어린이는 앞으로 전쟁을 위해 길러지는 소모품이었고, 지배층을 위한 이익의 산출을 위한 값싼 노동력으로 또는 미래의 이익을 위한 투자의 대상이다.

아동관의 변화는 중세 특히 기독교의 영향에 의해서이다. 어린이의 생명은 어른들과 동일하게 취급 되어졌다. 만인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어린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안인희 외, 1992, 16). 오히려 중세 기독교에서는 어린이란 존재 자체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종교개혁 이후의 신, 구 기독교 세력은 교육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종교의 도덕적 위기를 어린이를 교육함으로써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교육의 확대를 통해 교권 확립의 수단으로 삼았다. 정치적·사회적 비호 속에서 경쟁적으로 학교 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다(안인희 외, 1992, 20). 주로 어린이 교육은 기존의 개인 교습 방식을 통한 개인 역량 발달에서 일정부분 공교육 방식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어린이는 어리다는 이유로 이성과 판단력이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되었다. 또한 무지하고 허약한 존재이며 충분한 발달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어른에게 절대복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종교 세력이나 계몽주의자들에게도 그 이해도는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어리다는 것 자체가 죄로 인식되었다.

이런 점에서 루소의 에밀은 가히 혁명적이다. 어린아이의 영혼에는 본래적인 자연 상태가 남아 있고 어른의 부패한 마음이나 모방 욕구를 이식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 기독교교육의 자리는 이런 매우 천박한 자본주의적이고 신식민주의적 모습과 같이하고 있다. 교회 교육의 투자는 어린이를 다음 세대의 교회를 경영하거나 운영을 도울 효과적인 투자 대상으로 여기거나 교회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독교교육의 자리는 커다란 왜곡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사회의 공론장에서 가난한 자들과 밀려난 약자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밀려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루소는 어른의 축소 물이나 미성숙한 어른으로 보는 그 당시의 견해를 비판한다.

“아이는 짐승이어서도 안 되고 어른이어서도 안 되며, 단지 아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스스로의 약함을 느껴야 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의존하되 복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요구하되 명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루소, 2008, 69)

어린이에게는 그 성장은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의 발달 단계에서 어린이로서의 완성할 세계가 있다. 자연이 만든 인간은 선하고 원래부터 인간은 그 근본에 있어서 자연성을 닮아서 착하고 선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표 자체는 자연성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린이의 현재를 위한 교육, 자연인으로서 그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자연인의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작은 욕구만을 가지고도 이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연인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다. 불안이나 초조함은 능력 이상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자연인은 다른 사람에게 예속될 필요가 없으므로 평화 속에서 평등하고 자유롭다. 자연인은 자족하며 자유하고 평등한 존재이다(안인희, 1992, 57).

2) 어린이에 대한 이해

어린이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인간이다. 어린이는 문화와 예술로부터 왜곡된 자연성에서 어린이의 본성을 유지하며 시민사회에서는 자연성을 회복하고 발현하는 시민으로 서게 한다. 어린이는 어린이로서의 완성이다. 자연으로부터 연계 되는 인간의 본성을 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사고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김현우, 2021, 37). 인간이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본성을 발현하여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바로 서는 존재

이다(김현우, 2021, 38).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의 인간과 시민으로 변증법적으로 서는 존재이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한 존재가 정치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정치적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완성을 통하여 사회적 역할이 수행되는데, 여기서 시민사회는 어린아이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루소(2008)는 어린이는 발달단계별 교육의 특징이 있고 그 단계별 자체로 충분한 교육적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발달심리학과 교육학을 학제적 융합을 통해 또한 사회비판과 교육학도 학제적 융합을 통해 접근한다. 어린이에게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하고, 어린이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태도가 강조된다(루소, 2008, 23). 『에밀』에서 어린이가 어떤 질문을 할 때라도 즉각적으로 대답하거나 답을 주지는 않는다. 루소(1762)는 어린이에게 스스로 알아가는 기회를 위해서 어린이 자신에게 맡겨두라고 한다.

교육원리와 목적은 첫째, 모든 어린이에게 내재해 있는 자발성의 원리이고 둘째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셋째는 어린이에 대한 어른의 성실한 관찰이고 넷째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의 원리이다(안인희, 1992, 61).

과정과 내용은 교육은 자연, 인간, 사물,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연은 인간을 내적으로 성장시키고 인간은 그 성장을 활용하도록 돕는다.”(루소, 2008, 12) 반면 사물은 그것과 부딪혀 얻는 경험의 측면에서 교육을 돕는다. 자연은 생명의 원류이며 근원이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시상태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서 자연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자연이다. 이런 점에서 루소와 에드먼드 후설의 생활세계에 버금간다. 과학을 통해 자연이 수학화가 되고 기술 지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생활세계는 여전히 본래적인 것으로 남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에밀』은 발달단계와 시기별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단계의 완성으로서의 교육이 있다는 것이다.

IV. 루소 ‘사회계약론’의 교육학

1.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가(1762) 『에밀』 5권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사회계약론』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에밀』은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교과서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과 『에밀』은 시민의 역량을 정의하고 함양하기 위한 시민교육에 관한 정치 철학적 성찰에 이바지한다. 시민의 역량과 교육은 주체성 교육이다. 교육목표는 자기 충족성과 자기 지배권을 함양하고 주체성을 획득(오수웅, 2015, 289) 하며, 능력의 계발과 균형으로 자기 지배권, 자기 충족성, 그리고 욕망이 필요를 넘지 않게 하고, 아이들의 언어와 몸짓을 연구(본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하는 것이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법의 원칙이지만 문화와 예술, 반자연적 상태의 사회 문명의 발달로 자신 생존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할 때 다른 삶의 협력이 필요해진다. 이때 필요한 한 것이 사람들이 맺는 사회계약이며 이 사회계약은 자연적 자유 대신에 사회적 자유를 모두 누리게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평등을 가져다준다. 여기에서 최고의 지도원리로서의 일반의지를 창출하게 된다.

일반의지의 도덕성 교육의 목표는 덕과 도덕의 일치로 참다운 관계와 감정을 형성한다(오수웅, 2015). 감각경험을 통한 이성 훈련을 통해서 유용성, 평등성을 기른다. 정치성 교육으로는 사회질서와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교육목표는 도덕성의 사회적 실천이다. 교육방법은 도덕적 성찰과 행동으로

타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학습, 행동하는 법을 교육해야 한다. 루소는 플라톤의 법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민중이 빈곤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새로운 계약관계에 의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사회의 건설에 있다. 구체제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안을 불평등까지 파악하고 있다.

2. 『사회계약론』의 일반의지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중요 개념은 ‘일반의지’이다. 루소는 시민사회 안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기본적인 협정을 통해 요구한다. 이것이 일반의지인데 주권자들의 동의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의미이다. 루소의 일반의지가 한정적이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연 상태와 불평등의 사회적 기원을 분석하면서 자연적인 자유와 평등을 사회계약과 일반의지 개념을 통해 회복하려고 한다. 이것은 시민사회와 공화제 민주주의 구성에서 정점에 달한다. 사회계약 1권 1장 서두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인간은 사슬에 묶여 있다.”(루소, 2019, ch.1) 루소는 일반의지에 호소하고 개인과 공동체는 이러한 지배 아래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전체의 의지와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개인 의지의 집합 또는 공공결정을 통한 모든 사람의 의지로 동일시하지 않았다. 개인의 의지 안에 존재하는 일반의지를 따를 때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도 보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의지가 공동의 이해와 공공의 선에 기여하며, 그것은 항상 옳고 양도할 수 없지만, 도덕성을 의지의 순수함에 근거를 두고, 공공의 삶 영역에서 도덕의 실현이 사회계약과 국민적 승인을 통해 드러나는 일반의지를 통해 사회계약과 국민적 승인이 드러나고 확보된다. 도덕적 자유가 인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만든다. 법에 대한 복종은 이러한 자유로부터 온다. 선의 윤리적 측면, 즉 윤리적 삶의 영역을 통해서 공공의 삶에서 정의는 실현된다. 루소의 시민

사회론은 국민 주권, 사회계약, 보편의지, 독재에 대한 정당한 혁명 그리고 일반 투표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로 특징된다. 루소는 시민사회를 정치사회와 분리하지 않는다(정승훈, 2021, 315). 루소의 정치 경제학에서 기본 원리에 근거하는데 자연은 인간을 행복하고 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인간에게 자연적인 권리를 비본질적 존재로 만들었지만, 사회계약에서 정치사회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자유는 자연의 상태에서 존재하는 자유를 대신한다(루소, 2019, ch.1, 5장).

루소에게서 자연적 자유인 각자 개인의 몫에 대해 시민적 자유인 항상 모두를 위한 평등한 입장인 공동체에 예속된다. 인간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희생과 불평등 대신에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자유와 평등을 확보한다. 이것이 일반의지의 최고의 지도원리이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주권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유대와 연대의 중요성을 지적한다(김영호, 2021, 27). 주권 행위는 열등한 자에게 내리는 우등한 자의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적합한 정의와 유용성, 즉 계약에 근거 되며, 노예에게 내려지는 주인의 명령도 아니다.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갖는다. 여기서 ‘한 개인의 의지 안에 존재하며, 개인이 일반의지를 따를 때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보장된다.’(루소, 2020, 162) 라는 원리가 가능해진다. 루소는 주권을 일반의지에 근거하며 합법적인 정부는 공화제이지만 제한적 군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정승훈, 2021, 322) 심부름꾼으로 의회의 회원들만이 존재한다.

이들은 일반의지를 통해 법을 제정한 입법권자의 국민 주권에 기초해서 법을 집행한다. 루소는 절대적 평등을 거부한다. 평등은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동등해야 함을 말하지 않는다. 불평등의 해결책은 법률을 통해 규제해야 할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치기구의 일반의지는 최고의 지도원리로 그 사회는 정당한 정치 질서를 갖게 되며 독재에 의한 정부의 권력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는 자연으로부터 부여받는 선물이며, 자유를 통해 인간이 된다. 그러

나 권력 남용과 입법 체제에 왜곡이 존재다. 자연적 자유에서 인간은 적자 생존의 위협을 받고 강자는 약자를 지배한다. 합법적으로 규정된 시민의 자유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시민이 되며, 법을 통한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준수한다. 사회계약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선을 위한 연대에서 구체화 된다.

루소는 경제적 정의를 분배의 차원에서 고려하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서 밀려 나간 자들에 관한 관심을 그의 정치 경제학 사유에서 표현한다. 토지 분배는 다른 재산권을 창출한다(루소, 1964, 154). 소유는 자연적인 연민을 약화하며, 평등을 파괴한다. 인간을 탐욕적, 야망적 그리고 악하게 만든다. 만인들 사이에서 영속적인 갈등과 충돌이 드러난다(루소, 1964, 157). 루소는 각자에게 각자 주어지는 정당한 몫의 원리는 “모든 소유의 기반으로 봉사한다.”(정승훈, 2021, 326)는 공동체의 기반으로 삼는다. 공공선은 두 가지 원리들에서 파악되는데,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다. 시민이 자유와 더불어 루소는 평등을 옹호하는데, 재산과 부를 고려할 때 누구는 풍부해서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가난해서 자기를 팔아서 연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자유와 사유재산은 일반의지와 함께 공공선을 위하여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또한, 각자의 적당한 몫은 시민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연대의 원리가 된다(김영호, 2021, 6).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소가 플라톤의 *suum cuique*-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기를 연대의 원리 특히 경제영역에서 분배의 정의로 파악하는 데 있다. 여기서 루소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르주아의 무제한 적인 부의 축적에 제동을 걸고, 또한 이에 대항하는 가난한 자들의 소유에 대한 혁명적 갈망에 시민적 연대로 나가게 된다.

루소에 의하면 정의와 부정의의 진정한 원리는 모두에게 최고의 선인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법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사유재산과 시민의 자유가 일반의지와 더불어 공공선을 위한 공동체의 기반으로 파악된다면 루소는 플라톤의 ‘각자의 정당한 몫’을

한 길을 나아가 경제적 분배에서 전개하고 시민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연대의 원리로 다듬어진다(정승훈, 2021, 326). 루소의 입장은 개인의 자유, 소유권 그리고 시민사회 안에서 연대가 중요하니 사유재산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유재산 제도의 인정과 법률을 통한 빈부의 차이를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계약에서 루소는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신분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분은 인간성의 권리와 심지어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연 권리는 시민사회에 선행하며, 시민사회는 자연 권리를 전제하는데 독립적인 자연인을 도덕적 존재인 시민으로 만드는 것은 일반의지 안에서 국민의 승인을 통해 시민 자유의 국민 주권이 된다.

V. 나가는 말

기독교 공공교육론의 목적은 왜곡된 자연에서 불평등의 기원을 극복하고 도덕적인 신앙과 책임 적 삶을 연결해주는 교육이다. 즉, 오늘날 기독교 공공교육론의 학문적 내용과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 안과 밖의 공공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신앙의 삶의 자리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론장에서 기독교 신앙인이 이루어가는 연대와 공존의 실천적 응답이다.

루소는 공공신학과 기독교 공공교육론에서 자유와 평등의 기본적 가치와 교회와 경제적 정의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 철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첫째로 루소는 어린이를 발견하게 한다. 어린이의 발견은 단순히 미성숙한 인간의 발견이나 존중에 머물지 않고 교육이 단지 성장이나 어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현대의 신자유교육이 지향하는

성장 교육이 지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어린이의 발견은 또한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어린이 교육과 가정교육을 강조하는 호레이스 부쉬넬의 교육철학과도 깊은 통찰을 공유하고 있다. 근대 교육철학자들과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공공교육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루소의 자연법과 일반의지를 통한 도덕 교육은 기독교 공공교육론의 교육철학적 함의와 출발의 매우 귀한 단초들을 제공한다. 루소의 자연법과 일반의지를 통한 도덕교육이 지향하는 곳은 시민사회의 정치 민주주의, 경제정의, 사회로부터 밀려난 약자들(인종, 계급, 성 등)에 대한 연대와 공공성을 열어주고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정치와 나라에 대한 신학적 실천을 제공한다. 삶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도덕적 가치는 기독교 공공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칸트의 도덕교육과 헤겔의 루소·칸트의 비판은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셋째, 기독교 공공교육은 학습자들이 현대 삶의 다양한 공문장들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와 도덕을 갖추도록 민주적으로 훈련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를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

넷째, 기독교 공공교육은 상호 존중과 인정을 통한 교육이다. 이것은 교육 현장이 민주적이며 상호 신뢰적이어야 한다. 다원화된 시민사회 안에서 다양한 공공영역들에서 필요한 공공선을 위한 프락시스(praxis)를 고려해야 하며, 사회의 밀려 나간 자들의 인권과 경제적 소외에 대한 연대를 기획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잃지 않으면서 기독교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기독교 공공교육론은 하나님 나라와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세계가 위기의 문제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참 고 문 헌

김시형 (2015). 루소 비판을 통한 칸트의 새로운 철학 이념의 확립-학문과 지혜의 통일-. **철학연구**, 제135집, 179-207.

[Kim, S. H. (2015). The establishment of Kant's new philosophical ideology through Rousseau criticism-unification of learning and wisdom. *Philosophical Studies*, 135th, 179-207.]

김영호 (2021). 공공신학과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Y. H. (2021). Public Theology as a task of Modern Christian Education. Ph.D's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Sungkonghoe University.]

김용민 (2004). **루소의 정치철학**. 경기:인간사랑.

[Kim, Y. M. (2004).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Gyeonggi: Ingan love.]

김현우 (2021). 루소의 자연교육론에 대한 고찰-기독교생태교육적 관점에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H. W. (2021). *A Study On Rousseau's Theoroy of Nature Education -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cology education-*. Master's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안인희·정희숙·임현식(1992). **루소의 자연교육사상**.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Ahn, I. H, Jung, H. S, and Lim H. S. (1992). *Rousseau's idea of natural educ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오수웅 (2015). 루소의 시민 교육. **한국정치연구**, 25(1), 277-302.

[Oh, S. W. (2015). *Rousseau's civic education*. Korean Political Research, 25, 277-302.]

조근호 · 강정인(2012). **사회계약론 연구**. 서울:서강대학교출판부.

[Cho, G. H. and K. J. I. (2012). *The study of Social Contract Theory*.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 정승훈(2021). **공공신학과 학제적 소통이론**. 서울: 동연.
- [Chung, P. S.(2021). *Public theology and the theory of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Seoul: Dongyeon.]
- 장신근 (2003). 세계화의 도전과 공적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20, 452-465.
- [Jang, S. G. (2003). Globalization and the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as a Public Practical Theology,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20, 443-465.]
- 장신근 (2009). 교회의 민주시민 교육:공교회와 공적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논총**, 21, 109-152.
- [Jang, S. G. (2009).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the Church,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1, 109-152.]
- 장신근 (2015). 화해와 치유의 생명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온전성을 지향하는 지역 교회 교육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2, 133-168.
- [Jang, S. G. (2015). A study on Local Church Education Seeking the Integrity of the Kingdom of God.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133-168.]
- 황성원 (2012).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과 그 현재성. **열린교육연구**, 20(4), 337-355.
- [Hwang, S. W. (2012). The Rousseau's Theory on Childhood Education and Its Nowness Shown in Emil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4), 337-355.]
- Rousseau, J. J. (1964). *The First and Second Discourses*. ed. Roger D. Masters and trans. Roger D. and Judith R. Masters. New York: St Martin'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750.
- Rousseau, J. J. (2020).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재형 옮김. 서울:문예출판사.(원저출판 1755).
- [Rousseau, J. J. (1755). *Le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 Trans. Lee. J.H, Seouj:Munye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755.)]

Rousseau, J. J. (2019). **사회계약론**. 정영화 옮김. 서울:산수야. (원저 출판 1762a).

[Rousseau, J. J. (2019). *On the Social Contract with Geneva Manuscript and Political Economy*. Trans. Jung.Y.H., Seoul:Sansuya(Original work published 1762a.)]

Rousseau, J. J. (2008). **에밀**. 이환 편역. 서울:돋을새김. (원저출판 1762b).

[Rousseau, J. J. (2008). *Emile ou, de l'education*, Trans by Lee. H., Seoul:Doleul saegim(Original work published 1762b.)]

Abstract

Rousseau's Philosophy of Education and Christian Public Education

Youngho Kim

Research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Korean churches and theology of today are experiencing a decline in reliability and a lack of communication from the Korean society due to the absence of proper reflection. Moreover,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 church is led to a situation where the problem of survival has become a concern. In addition, churches and theology failed to restore the public nature of faith from civil society, and how these beliefs could be developed in terms of Christian educ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heological task. The restorat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church brings interest in public theology, and if education is an important area of the public forum, we pay attention to educational philosophers who provided the basis for publicness and civil democracy education philosophy in Christian education. Rousseau, as an educationalist who opened the modern philosophy of education is opening up the civil society through discovering the existence of children with the proposition "Return to Nature" in the 18th century. This study aims to use Rousseau's educational philosophy in his books *Emil*, *The Theory of Inequality Origins*, and *Social Contract Theory* as the basis of educational theory that opened the foundation of the public domain and civil society.

《 **Keywords** 》

Christian Public Education, Public Theology, Rousseau, Emile, Social Contract Theory, Educational Philosophy

- 투고접수일 : 2022년 9월 6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29일